

“지역사회 중심의 당뇨 교육 사업 계획”

정통령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

당뇨병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암’ 같은 질환처럼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뇨’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2000년부터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을 시작하여 예방교육·홍보사업, 조기발견사업, 보건소 중심의 등록관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민간 참여형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SMS를 활용한 치료일정 및 누락치료 안내, 보건교육 기회 안내, 당뇨 합병증에 대한 맞춤형 건강검진 기회 확대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등 당뇨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당뇨병환자에게 필수적인 ‘당뇨교육’이 각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 급속도로 증가하는 당뇨병환자를 위해 국가에서 ‘당뇨 예방·관리 10개년 계획’을 실시해 각 지역 센터에(보건소와 같은) 당뇨전문 의료진을 배치, 가깝고 편리하게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건소와 구청 등에서 당뇨 교육을 실시하지만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심도 있는 진찰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2007년 예상되는 지원이 있는지요?

우리나라도 2006년 6월에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의 보건소와 일부 병원을 지정하여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당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설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 경로당 등 지역사회 다중이용시설이나 직장 순회 당뇨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련 학회 등과 함께 당뇨병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당뇨병환자는 평생 동안 스스로 관리해야 하고, 이로 인해 많은 합병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가정 형편이 불우한 환자들에게는 고통으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이나 만성 신부전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약물치료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시행될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뇨병환자들은 합병증 유무를 위해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정기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특별히 권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정기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정책에 포함 되는 이야기지만 모르고 방치하는 것보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는 단순히 당뇨병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질 높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당화혈색소나 미세단백뇨 검사, 안저검사 등과 같은 당뇨병의 합병증과 관련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등 질환자에 대해서는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 진료 지침 개발·보급하며, 당뇨병환자에게 1년간 표준적 진료(필수검사, 문진, 교육 등)를 시행하고 관리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합병증 검사율 등 필수 예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 2형 당뇨병환자의 대부분은 본인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즉 불규칙적인 식사와 과식, 이로 인한 비만, 운동부족, 음주 등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시행 되어야 할 것들도 말씀해 주세요. 1998년부터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4개 분야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실시하여 현재 전국 249개 보건소로 확대·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3년에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신체활동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열량 및 당분 함량 표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스낵 및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광고 제한, 학교에 탄산음료 자판기 설치 금지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핀란드는 당뇨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적은 액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외래 진료시 약제비 등이 부담스러운 국민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뇨병환자도 늘어가고 있지만,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내당능장애나 공복혈당장애를 가진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자신은 본인이 당뇨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우연히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아당뇨(1형 당뇨)와 2형 당뇨, 그리고 당뇨병 전단계인 내당능장애와 공복 혈당장애를 미리 알고 개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공복시 혈당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수검률이 51%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07년부터 40세와 66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복시 혈당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당부하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내당능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체 소아를 대상으로 한 당뇨병 선별검사는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전면적인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당뇨'에 관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뇨 홍보 사업도 필요한데,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당뇨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도 알고 싶습니다.

전국 보건소를 통해 당뇨병에 관한 홍보자료 보급 및 소그룹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나 한국당뇨협회 및 당뇨병학회 등 민간단체나 학회차원의 홍보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당뇨'에 관한 지식과 정보전달, 또 일반인의 혈당점검을 위해 무료 혈당측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당뇨병환자를 위한 공개강좌와 운동 프로그램, 당뇨캠프 등을 실시해 보다 확실한 당뇨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인원 부족, 재정 부족, 조직 부족)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계획과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한국당뇨협회는 당뇨병 전문지 월간당뇨 발간, 무료 당뇨 강연, 당뇨측정 캠페인, 당뇨인 산악회, 성인 당뇨 교육 캠프, 당뇨 걷기대회 등의 사업을 통해 당뇨병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당뇨병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등 정부의 질병관리 정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러한 민간차원의 활동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점차 지원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한 해를 보내고 2007년을 다시 시작하는 당뇨병환자들에게 격려와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질병의 자가관리를 위한 환자들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환자의 80% 정도는 적절한 자가관리를 통해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우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시기를 당부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